

International Computer Music Conference 2011

Shin, Seongah

International Computer Music Conference 2011 was held from 31st July to 5th August 2011 in Huddersfield University, Huddersfield in England, hosted by CeReNeM (Centre for Research in New Music). The subject for the conference was *innovation : interaction : imagination*, representing a keen interest in the potentiality of arts and technology. The keynote speaker was Simon Emmerson, the professor of Music, Technology and Innovation, Department of Performance & Digital Arts at De Montfort University. The conference was composed of 15 concerts, 15 paper sessions, 2 workshops, 4 posters & demos, 4 unconferences, a piece & demo, installations, a ICMA general meeting, a conference banquet, and many others. The best paper presentation was awarded to Benjamin Knapp and Eric Lyon with *the measurement of performer and audience emotional state as a new means of computer music interaction: a performance cast study*. Asian Regional Awards went to Yu-chung Tseng's *Metascape ii-the Inner-voice of the Chinese Opera Cymbal*, from Taiwan.

2011년 국제 컴퓨터 음악 학회는 영국 잉글랜드의 허더스필드에 위치한 허더스필드 대학교에서 열렸다. 허더스필드는 맨체스터에서는 한 시간 정도 남쪽으로, 런던에서는 세 시간 정도 북쪽으로 가면 있는, 지역적으로는 영국의 중심부에 위치한 작은 타운이다. 유럽, 아메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등 전 세계 여러 지역 출신의 작곡가, 이론가, 연주가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발표하기 위해, 또 최신 테크놀로지 이론과 그것을 작품에 사용한 여러 가지 사례를 보고 듣기 위해,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영국으로 향했다. 2011년 학회의 주제는 '혁신 : 상호작용 : 상상'이었으며, 컴퓨터 음악 분야에서 창조적인 응용과학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상상력이 풍부한 작품으로 보여주는 것, 그리고 예술과 기술 사이의 새로운 상상력을 강조하는 것에 그 중요성을 두어 정해졌다. Michael Clarke를 학회장으로 허더스필드 대학교의 신음악 연구소(CeReNeM)에서 이 학회를 주최하였다.

2011년 국제 컴퓨터 음악 학회

신성아

2011년 7월 31일부터 8월 5일까지 6일 동안 하루 평균 4-5개의 논문 발표회와 1-2개의 포스터 전시회, 설치물 전시회, 非컨퍼런스 이벤트, 테이프 음악이나 시청각audiovisual 작품이 연속해서 재생되는 청각실 상영, 그리고 거의 매일 3개의 연주회가 열렸다. 출판작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예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작품들을 선별하여, 참석자들이 대부분의 행사에 가 볼 수 있도록 일정을 겹치지 않게 조정된 것이 인상적이었다.

기조 연설

Simon Emmerson는 드 몽포르De Montfort 대학의 교수(Professor of Music, Technology and Innovation, Department of Performance & Digital Arts)로서 영국에서의 컴퓨터 음악을 오래 전부터 교육하면서 전자 장치를 쓰지 않은 악기와 컴퓨터 음악을 위한 작품을 꽤나 오랫동안 작업하여 왔다. 학회에서는 그의 공로를 기리기 위하여 그를 기조 연설자로 초청하였고, Music Imagination Technology라는 주제 아래 편안한 어조로 잔잔하게 자신의 음악관을

이끌어내었다. 온화한 화법 덕에 그의 강연 내용이 비록 강렬하게 전달되지는 못하였지만, 작곡가로서뿐만 아니라 미학자이자 철학자로서 그가 지닌 연륜과 풍모를 함께 엿볼 수 있는 기회였다.

연주회

Pierre Alexandre Tremblay는 이번 학회의 의장으로서 연주회와 프로그램 편성 제반에 걸쳐 책임을 맡았다. 오후 12시 30분과 오후 2시의 테이프 음악과 시청각audiovisual 작품, 그리고 한 두 곡의 라이브 곡들을 중심으로 하는 연주회는 크리에이티브 아트 빌딩Creative Arts Building 내 3층에 위치한 블랙박스 형태의 필립스 콘서트 홀Phipps Concert Hall에서 열렸다. 주요 연주회인 저녁 8시의 공연이 열린 세인트 폴 홀St. Paul Hall은 예전에는 교회였던 건물로 전형적인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으며, 그러한 까닭에 음향 또한 그 전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신자적인 객석은 가파른 경사를 가지고 있어서 무대를 보기에 좋았으나, 스피커의 위치 설정 등과 같은 음향적인 문제를 특별히 신경 써야 하는 구조였다. 저녁 식사 이후 10시 30분경 넓은 카페테리아와 바를 겸한 학생들의 공간 '더 그라デュ에이트'The Graduate에서 열린 마지막 공연은 전형적인 연주와는 다르게 자유로면서 실험적인 공연을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된 분위기였다. 맥주를 비롯한 간단한 음료를 마시면서 음악을 들을 수 있고, 앞쪽으로는 소파와 테이블에 앉고 뒤쪽으로는 바에 서서 음악을 듣는 형태로 간혹 관객들의 소음이 공연에 끼어들기도 하고, 반대로 공연이 관객들의 대화를 방해하기도 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연출되었다. 랩톱 음악, 디제잉Djing, 실시간 코딩live coding, 실시간 통신 공연live networking performance, 소음 음악noise music 등 다양한 실험 음악들이 공연되었으며, 음악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와 이에 대한 소통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인 공연이었다. 첫 날의 오프닝 콘서트에서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교수인 Richard Dudas의 작품 「Prelude for Flue and Computer」가 연주되었다. 또한, 현재 미국에서 활동 중인 최다정의 「타악기와 컴퓨터를 위한 Mons Montis」는 Damien Harron에 의해 연주되어 호평을 받았다.

논문 발표와 워크숍

영국 컴퓨터 음악의 전통을 보여주듯 입체 음향spatial sound이 주제로 크게 다루어졌고, 작곡 시스템systems for composition, 합성 기술synthesis techniques, 분석 기술analytical techniques, 미학 및 물질성aesthetics/physicality 등 여러 분야를 망라한 다양한 주제의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2011년 ICMC의 최우수 논문 발표상best paper presentation award는 Benjamin Knapp과 Eric Lyon의 「The measurement of performer and audience emotional state as a new means of computer music interaction: a performance cast study」가 수상하였는데, 테크놀로지의 사용에 있어서 기술적인 측면뿐 아니라 음악, 미학, 심리학적 다양한 측면들을 세밀하게 추적하기 시작했다는 현상을 보여주는 단면이라 보여진다.

非컨퍼런스

非컨퍼런스 세션은 학술대회의 전형적이고 획일화된 포맷에 대한 반발로 논의되어 몇 년 전부터 시작된, 다양한 소재와 주제에 대한 논의, 실험, 소통 등을 주제로 하는 세션이다. 특별히 젊은 학생들이나 20-30대의 예술가들이 즐겨 찾는 세션으로 올해에는 학회에서 주목 받기 어려운 실험 음악이나 소음 음악, 랩톱 음악, 네트워크 음악, 지역적 음악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자유로운 모임을 가졌다.

청각실 상영

올해 학회의 여러 세션 중에서 음악을 많이 듣기 원하는 참석자들에게 특히나 호평을 받은 부분이었다. 하루 2회 정도의 청각실 상영 일정이 하루 종일 지속적으로 이어지며, 2개의 공간에서 각각 8개 채널, 16개 채널의 스피커

시스템과 시청각_{AV} 시스템을 통하여 작품을 보거나 들을 수 있었다. 특히 한국예술종합학교 테크놀로지 전문사 재학 중인 조태복의 작품《Think of Tool》과 현재 독일에서 활동 중인 작곡가 홍민희의 《Between Sleep and Wake for audio-visual》은 8월 2일 화요일 2b 세션에서 연주되어 관심을 끌었다. 시청각 작품들의 다양성과 음악성이 유난히 관심을 끌었는데, 이제는 영상과 음악의 결합 작업이 안정기를 지나면서 다양하고 흥미로우며 독창적인 작업이 발표되는 빈도가 잦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데모와 포스터

데모와 포스터 세션은 매일 오후 연주가 끝나는 시간인 3시에서 두 시간여 동안 크리에이티브 아트 빌딩의 로비에서 열렸다. 열린 공간인 로비는 여러 개의 크고 작은 강의실의 중심에 위치한 까닭에 데모 세션은 강의실에서 문을 열어 놓은 채로, 포스터 세션은 로비의 벽과 설치된 테이블을 이용하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치러졌다. 다양한 주제의 포스터 발표를 볼 수 있었는데, Magaret Schedel과 Rebecca Fiebrink가 공동으로 개발 중인 'K-Bow'와 'Wikinator'를 가지고 활의 연주표현 강도를 비교 분석하는 데모를 통하여 실제 연주에서 악기의 아티클레이션 자료를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주었으며, Tom Erbe가 개발한 페이즈 보코더_{phase vocoder}의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인 'PVOC KIT'은 플러그인_{plug-in} 형태로 사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_{GUI}환경을 구축하여 쉽게 음고 이동_{pitch shift}을 구현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인상적이었다.

설치물

설치물 전시에는 단지 네 작품만이 선정되어, 선정된 작품 모두 설치가 가능하도록 공간을 확보해 주려는 주최측의 배려가 돋보였으며, 관람자의 위치 정보를 가지고 소리풍경_{soundscape}을 만들어 내는 인터랙티브 사운드 인스톨레이션_(interactive sound installation) The Canopy(Joyce Koh와 PetMagnus Linborg, Yong Rong Zhao의 공동작품)는 조이스틱을 이용하여 음향과 가락을 그려내면서 이를 하나의 작품으로 합쳐내는 기술을 선보였다.

참고사항

올해는 아시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학회가 열린 까닭에 아시아 출신 작곡가들과 이론가들이 많이 참석하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 일본, 타이완, 싱가포르 등 아시아에서 온 참가자들은 '아시안 런치'라는 점심 모임을 가질 수 있었다. 우리 이웃 나라의 예술가들은 가까운 거리에 살고 비슷한 관심사를 가지고 작업하면서도 국제 행사에서나 만날 수 있을 만큼 평소에 교류하기가 쉽지 않다. 더욱이 2010년부터 시작한 아시아 컴퓨터 음악 프로젝트(Asia Computer Music Project)에도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는 만큼, 국제 행사를 통하여 가까운 나라들과 예술적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이는 ICMA 아시아 지부에서 할 수 있는 일로서, ICMA 총회에서 이에 대해 논의하여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아시아 지역의 연주회나 행사에 ICMA의 이름을 사용하고, 관련 정보를 널리 공유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아시안 런치'를 통해 더 많은 아시아 사람들과 이러한 점을 공감하였으며, ICMA 총회의 지원 아래 아시아 지부의 연주회나 행사를 따로 마련하는 등 지부 차원의 자리를 공유할 것에 대해 논의하였다.

회의와 시상

협회에서는 매년 학회 기간 동안 크고 작은 행사를 준비한다. 먼저 운영회의에 해당하는 운영진 모임은 학회가 시작되기 하루 전날 하루 종일 이어진다. 올해도 7월 30일 오전 9시부터 크리에이티브 아트 빌딩의 세미나실에서 다양한 주제를 토대로 한 회의와 발제,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이 이어졌다. 이 모임에서 특히 중요한 결정 사항 중 하나는 내년을 비롯해 앞으로 몇 년 동안 학회 개최를 담당할 주체와 도시들을 정하는 것인데, 세계적인 경제적 불황의 여파로 학회 개최를 적극적으로 희망하는 곳을 찾기 힘들었던 최근 몇 년간의 상황과 달리 올해는 무척

활발하고 경쟁적인 개최 희망 프레젠테이션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고무적이라 할 만하다. 결론적으로 2012년 국제 컴퓨터 음악 학회는 다시 유럽에서 열리게 되었는데, 슬로베니아Slovenia의 수도 류블랴나Ljubljana에 있는 The Institute for Sonic Arts Research(IRZU)를 중심으로 2012년 9월 9일부터 15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마침 그때는 슬로베니아의 풍광이 특히 아름답다고 한다. 9월에 가을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에게는 무리한 일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에 대한 작품 공모는 2012년 1월 4일부터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고 하니, 관심을 가지고 찾아 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

참고 자료

- [1] International Computer Music Conference 2011 Website
<http://icmc2011.org.uk/>
- [2] International Computer Music Association Website
<http://computermusic.org/>
- [3] International Computer Music Association-Array, the Journal of the ICMA
<http://arrayblog.wordpress.com/>
- [4] International Computer Music Conference 2012 Website: The Institute for Sonic Arts Research (IRZU); Ljubljana, Slovenia
<http://www.icmc2012.si/>